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비서실장 강훈식

〈4선·서울 영등포을〉

〈前 통일부장관〉

〈3선·충남 아산을〉

새 정부 첫 인사

직접 인사 발표… 안보실장 위성락
경호처장 황인권·대변인 강유정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 중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에서 함께할 참모들도 임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3선·충남 아산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초선·비례), 경호처장엔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으로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

이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재임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내란을 함께 헤쳐왔던 만큼, 이번 인선은 당과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종석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라며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통상 파고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인선 기준, 국민에 대한 충직”

李 대통령 인사 질의응답

“추경 편성, 빠른시일 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인선을 단행한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한 것, 그리고 유능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인사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기간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통합 측면에서 첫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께서 잘 평가해 주길 기대할 뿐”이라며 “인선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유능함인데, 둘 다 갖춘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 중심일지, 통합 중심일지

특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충남 출신 3선 의원으로, 1970년 대선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강 비서실장은 내리 3선을 지낸 지역구를 포기하고, 새 정부 성공과 민생회복을 위해 합류를 결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짧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장에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으며, 이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다. 이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새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

가 사실 충돌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인선을 보면 저와 가까운 사람을 인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남은 각료 인사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민의 의견과 당내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실 경제참모 등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관련 장관 등 인사가 급하지 않나 하는데, 그건 중장기적 경제정책과 관련이 깊다”며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이 뭔지, 규모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호처 조직을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만들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
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강유정 의원은

경선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제된 언어와 정무감각까지 갖춰 대통령 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前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15, 16, 21, 22대)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前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국정원장 후보자  이중석 前통일부장관 前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장 前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前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前 중국 북경대학교 객좌교수 前 제32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  강훈식 前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20, 21, 22대) 前 국회 산자·복지·예결위원회 간사 前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안보실장  위성락 前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前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前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前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정부공사	경호처장  황인권 前육군대장 前대한민국육군제2작전사령부사령관 前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 군단장 前 대한민국 육군 제51사단 사단장 前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 참모장 前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대변인  강영정 前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前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 前 민음사(세계의 문학) 편집위원 前 고려대 연구교수
--	---	--	---	--	---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나라,
우리라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마음 한 편을 건네는 우리

언제나.우리를.맨앞에

우리가 바라던 세상을 향한
우리나라의 새 출발
우리금융그룹도 응원하겠습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산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엑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